

치열한 문학적 고뇌의 결실

거희가 영예로운 예술인

문화시리즈 — 시(上)

‘본교 출신 문인들이 올바른 그리고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혹자는 이 말이 편협한 가족주의가 아니냐고 비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학교 출신 시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족적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관계상 좀더 많은 시인들의 문화세계를 깊이있게 다루지 못함을 독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이 글에 언급된 선배문인들께도 ‘넓은 문화세계를 오히려 협소화 시키지 않았나’하는 죄송스런 마음을 전한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살아온(특히 60·70년대) 시인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제 나름의 시를 빚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본교 개교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간동안 대단히 많은 시인들이 본교를 거쳐 문단에 들어섰다.

시라는 것이 어느 것은 옳고 또 어느 것은 그르다는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들이 발하고 있는 각자의 빛깔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순수든 참여든 모더니즘이든 리얼리즘이든 간에 그들의 시에는 그만큼 큰 고뇌의 흔적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시집 ‘식칼’ (1970)과 ‘국토’ (1975)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조태일 시인.

본교 재학생인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아침 선풍’이 당선되면서 시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조태일의 시에는 부패한 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건장한 시인의 날카로운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둠’ 만 눈썹은 가슴 ‘도둑의 그림자’ 등의 시적 언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잘라내야 할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식칼’은 ‘어둠앞에서도 한번 꽃꽂이 서더니 퍼런 빛을 사방에 쏟아 내는 번쩍임과 섬뜩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칼인 것이다.

그러나 ‘식칼’에서 그는 한 시대의 지식인의 한계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지식인 시인들의 시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로 부패한 권력에 물질적인 변화를 가하지

사회에 대한 약간의 아우와 울화도 곁들여 있다고 하면서 ‘지식인 육체노동자의 슬픈 의지가 배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성부 시인은 이후 연작시 ‘전라도’를 쓰게 되는데 이 연작시는 시집 ‘배재행’과도 연결되는 면을 보이고 있어서 일관된 시풍을 엿보게 한다.

또한 ‘전라도’에는 질박한 향토성이 깔려 있어 최하림 시인은 이를 ‘생광을 갈아뒀는데’란, ‘생광내가 들을 진동하는 시’라고 느낀 바를 적고 있다.

‘노인은 삼으로/ 영산강을 퍼올린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머지않아 그대 눈물의 뿌리가 보일 때까지/ 노인은 다만/ 성난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저항의 목소리 내 민중과 일체되지 못한 지식인적 시세계 보여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로 인해 시집 ‘국토’는 발간되자마자 긴급조치 9호로 판매금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 시인 자신도 이후 육고를 치루기도 했다.

‘그는 이 아픈 시대를, 이 숨 막힐 듯한 상황을 실감있게 호흡하며 살기 위해서 삶을 어떤 고여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움직임을 정면으로 파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삶과 시의 삶을 동시에 이룩하고 있다’

조태일 시인이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에서 이성부 시인을 평가한 대목이다.

현대문학에 추천된 이성부 시인은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우리들의 양식’이 당선되면서 재등단한 시인이다. 당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사를 맡았던 조지훈, 박목월 두시인은 이성부 시인의 시에 대하여 곁으로는 ‘소극적이고 회의적이지만

사람을 혼자서 괴롭힌다’

가운 눈에 불을 쬐는 것같은 노인의 행위를 통해 이성부 시인은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호승 시인은 ‘눈물의 시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시인은 1967년 본교에서 실시하는 전국 남녀 고교생 문예현상 모집에 ‘고교문예의 성찰’이라는 평론으로 당선되어 일찍부터 문재를 인정받은 시인이다.

그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침묵’이 당선되기 이전에 동시로도 등단을 하고 80년대에는 소설로도 문단에 등단하는 등 그의 글쓰기는 다양하다. 그가 등단할 때부터 출기차게 보여주고 있는 ‘물 흐르는 듯’한 문율은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문율은 타인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슬픈 적개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는 눈물도 아직까지 않는다. 즉 그의 시에서

까지/ 할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벨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에 실려 있는 ‘평일 부부 가수’라는 시이다. 이 시에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듯이 어두운 현실에서 ‘눈사람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는 어둠보다도 더 초연한 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래는 더 나아가 다 함께 부르는 함성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반항이 그만이 있는 시의 힘이랄 수 있다.

조태일, 정호승, 이성부 시인과는 좀 다른 시 경향을 보이는 본교 출신 시인으로 박이도 시인과 박정만 시인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박정만 시인은 그가 생을 마감한 1980년대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

경희의 역사가 바야흐로 반세기의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 경희의 역사와 함께 숨쉬며 찬란하게 장식했던 경희문화도 이제 하나의 금자탑을 쌓아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희문화의 발전과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경희문화 창조를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보는 경희가 낳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경희문화의 정모와 흐름을 망라해 보고자 한다.

시(上, 下), 소설·평론(上, 下), 음악, 무용, 미술 분야로 진행되는 이 시리즈가 모쪼록 경희문화사를 정리하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하고, 경희인들의 자긍심을 한층 고조시켜 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註>

글에서는 박이도 시인만 거론하고자 한다.

‘우리 황제의 눈은 원시인/ 무한의 식민지의 노동을 모아 제국을 세웠다./ 스스로 돌아갈 용데 왕묘를 준비하며/ 그는 만족히 웃을 수밖에 없었다.’

박이도 시인의 등단 작품 ‘황제와 나’ (한국일보 1962년 신춘문예)의 1연이다. 박이도 시인은 ‘회상의 숲’ (1968) ‘북향’ (1968) 등의 시집을 발행하고 1975년에는 ‘폭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였다. 이후 그는 ‘바람의 손끝이 되어’ (1980)를 내놓으면서 1970년대를 지낸다.

그의 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모습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순수함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집 ‘회상의 숲’에서 보이던 내밀한 내면세계의 형상화는 1983년에 내놓은 ‘불꽃놀이’에도 나타나 있고 최근에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내놓은 글에서도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시 세계는 따라서 자연에 귀착되는 양태를 갖게 되는데 상징화된 자연과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시 세계는 순수 서정시의 한 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이 그의 시에 나타난 것은 ‘산은 세월을 거꾸하고/시간의 무게에 눌러 스스

로 허물어졌지만/초원이 넓어지고 깃털처럼 감물이 흐르지만/해체는 원시의 함성/부서져 나가는 시간이었지만/나는 그 시간을 넘어섰지요’ (산, 다섯개의 산)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습인 것이다. 또한 데뷔작 ‘황제와 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에서는 정적인 힘을 일관되게 느끼게 하는데 이 힘은 곧 ‘시간도 없고 공간도 초월한’ 자유인의 힘과 일맥상통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상의 글에서 1970년대 한국 시단을 활발한 네 시인의 개략적인 시세계를 엿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본교출신 시인중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이들의에도 정말 많은 본교 출신 시인들이 훌륭한 자취를 남겼던 것이다.

결론으로 70년대를 정리하면서 이들이 남겼던 유류들도 조심스

럽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0년대는 이들 시인들의 오류를 딛고 일어서는 무서운 본교 출신 시인들이 선배들의 시세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70년대 시인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본교출신 시인들 중 사회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회를 응시한 시인들은 ‘지향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민중과 일체가 되지 못하고 지식인이 민중을 바라보는, 격정하는, 슬퍼하는 모습이 대부분의 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이 지적되는데 불구하고 이들 시인들의 시는 커다란 족적을 70년대에 찍어놓는 패거리 아니랄 수 없다.

<문화부>

캠퍼스 문화인

오는 12, 13일 임강교실에서 교내동아리 ‘탈’반이 선보이는 마당극 ‘밤’의 총연출을 맡은 기준모 (영문·88)군을 만나보았다. 대학문예인으로서 대선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를 ‘평일 없이 민족과 기층민중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며 그들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해 내려고 노력하는 문예인’의 전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지희의 원작소설을 임진택 씨가 마당극으로 재창작한 ‘밤’ 공연에 대해 기준모군은 ‘마당극 특유의 우회적 표현이 많고 관객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선정으로 신입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밤’을 주제로 ‘똥이 밥이다’



▷ 대학문예인으로서 대선배의 자리에 위치한 기준모군은 여전히 마당극에 대한 열정을 태우고 있다

문화단신

‘문예아카데미’ 열려 오는 16일부터 16주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구소는 오는 16일부터 16주간 ‘문예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문예아카데미는 민족예술의 대중적 교육과 전문적 수련을 위한 것으로서 백낙청(서울대·국문) 교수, 심우성(민속학자) 씨, 박재동씨 등의 강사를 초빙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서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신한빌딩 5층 민예총 사무실에서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입학비는 1만 원이다.

‘MDOP’ 정기공연 26일 크라운관에서

지난 77년 서울캠퍼스 의약계 학생들로 구성된 ‘M.D.O.P 오케스트라’가 ‘제1회 정기 연주회-서곡과 아리아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크라운관에서 갖는다.

이번 정기연주회 지휘는 최형석(음대·동문) 씨가 맡으며 정준과 달리 입장료를 받으며

극단 ‘가가’ ‘폼바’ 공연 10년 결산 2천회 돌파기념

극단 ‘가가’는 연극 ‘폼바’ 10년결산 2천회 돌파기념 연정 공연을 지난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동승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김시라 원작, 연출로 열리는 이번 공연 ‘폼바’는 서울에서 지난 83년 시작돼 미국순회 공연들을 거쳐 이번에 2천회 돌파 기념공연을 가지며 2단인 ‘남바’와 3단 ‘굿바’로 이어지게 된다.

민중대 연극부 ‘문밖사람들’의 제14회 정기공연 ‘失聲者’(부제 모욕)이 오는 12일부터 3일간 크라운관에서 진행된다.

‘문밖사람들’ ‘실비명’ 공연

정북문의 원작을 김성호가 연출한 이번 ‘실비명’ 공연의 기획은 황경환(사학·90)군이 맡았다.

민중의 정서 마당극에 담아 ‘밤’ 공연의 연출 맡은 기준모군을 만나

‘식사가 제사’ ‘나는 밥이다’의 세마당으로 꾸며진 이번 공연에서 농부역에 임춘섭(생물·91)군, 진심미 기자역에 유은주(영문·90)양, 호구거사역에 김대욱(법·90)군 등이 출연하며, 기준모군 자신도 직접 배우로서 공연을 참가한다.

‘극중 연기를 통해 노동자의 피어린 투쟁 대리체험하기도’

탈춤추는 모습과 구수한 장단이 그날 좋아서 ‘탈’반에 들었다는 그는 아직도 판에 서기 전으로 나름대로 뜻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그때 비로서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을 대리 ‘체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벌써부터 많은 신입생들이 동아리방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흐뭇해하는 그는 현시기 학내 문화계의 역할에 대해 ‘일상적인 연습·활동보다는 문화선전선동활동에 필요한 ‘가동적 체제’정비가 시급하다’며 ‘경희 문화대연합’을 꾸리기 위한 작업에 학내문예인들이 함께 나서주길 희망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라는 호구거사의 절규가 울려 퍼질 임강교실에서 기준모군의 문화운동관과 이 땅의 민중들이 처한 현실을 진솔하고 풍자적인 우스갯소리로 풀어낼 수 있리라 기대된다.

<이금주 記者>

시사저널과의 대화로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젊고 순수하기에 현실의 부조리에 분노합니다. 환경오염문제와 통일정책을 열면 목소리로 토론합니다.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며 우리 본연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일깨우기에 정열을 쏟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그저 즉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갖기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지성의 자존심 시사저널과의 대화로 올바른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시사저널은 젊은 지성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젊고 순수하기에 현실의 부조리에 분노합니다. 환경오염문제와 통일정책을 열면 목소리로 토론합니다.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며 우리 본연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일깨우기에 정열을 쏟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그저 즉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갖기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한국지성의 자존심 시사저널과의 대화로 올바른 비전을 정립하십시오. 시사저널은 젊은 지성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TV문화를 생각합니다



TV는 있되 TV문화가 없습니다. 비디오는 흔하되 비디오문화가 없습니다. 연예오락은 있되 건전한 비판적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중문화란 것이 그저 즐거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보성, 오락성, 비판성의 세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건강한 대중문화를 제시하는 TV저널 - TV저널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 모두의 대중문화를 반성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주간 TV정보지입니다. 지금, TV저널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의 진실을 찾아나서십시오.

시사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33-3330

TV저널 정기구독신청 : (02)720-8111

[주] 국제언론문화사 (IMI)